

현민 여러분께 지사의 부탁 말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특별경계 기간의 연장)

일상생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회피 행동을 실현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히메현은 연초부터의 현저한 감염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1월 8일 이후를
「특별경계 기간」으로 정하고, 현민 여러분께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동 자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마쓰야마 시내에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간에 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 덕분에 현 내 감염 상황이 뚜렷한 감소
경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감염 사례 감소와 함께 가정 내 감염, 감염 경로 불명 또한 감소하여
시중에 퍼진 감염 위험을 간신히 억제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요양·입원 환자의 상황도 상당히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70세 이상의 입원 환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부담 고비는
아직 넘지 않았습니다. 고령자의 입원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고, 양성 확인이
증가세로 돌아서면 다시 의료기관의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감염상황은 정점을 기록한 때에 비해 감소 경향으로
전환되고는 있지만, 지난번 10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는 등, 현 외 지역 간 이동에 따른 현 내의 감염 위험은 여전히 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감염상황과 의료현장의 부담, 전문가 의견,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 경계 기간」을 당분간
3월 7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탁드리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자숙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특히, 현 외 지역 간 이동에 따른 현 내의 감염
위험에 조심해 주시고,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특정 도도부현은 물론 감염 확대가
진정되지 않은 지역의 불요불급 왕래와 이 지역 분들과의 회식은 기본적으로
자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가정 내 감염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고령자 시설
등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시설 내에서 확산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 감염을 막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감염을 막는 것입니다. 의료·복지 관계자
등과 동거하는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가족 이외의 회식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마쓰야마 시내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은 2월 7일부로

종료합니다.

1월 13일부터 약 3주간, 음식점 뿐만 아니라 식·음료 거래 업자,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자, 더욱이 택시 등의 교통관계자 등 많은 관련 사업자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견디어 주셨습니다.

현으로서는 단축 요청 종료에 맞춰 2월 8일부터 현민 한정 현 내 숙박여행 할인을 추가 발행함과 더불어, Go To EAT의 신규 판매를 재개하는 한편, 현 내 시정(市町)의 소비를 지원하는 활동 등을 PR함으로써 현 내의 사업자·생산자 여러분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4인 이하의 소인원, 장시간을 피해, 동거 가족이나 자주 보는 사람들과의 회식을 철저히」와, 「감염확대 지역 주민과의 회식은 피함」 등, 철저한 감염확대 방지대책을 전제로 지금까지 협력해주신 음식점과 관련 거래업자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용해 주시어 지역 소비 회복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금의 방심이 바로 감염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 내의 감염을 확실히 억제하여 의료 현장의 부담을 크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2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민과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과 이별, 출발과 여행 등 많은 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 3월과 4월을 밝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결코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한층 더 감염 회피 행동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요청 내용 (감염 회피 행동)》

○감염 확대지역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1도 2부 7현) 으로 불요불급의 왕래와 출장의 자숙

※부득이 한 왕래와 출장 (수험, 의료, 관혼상례 등) 은 감염 회피행동을 철저히

※이 경우, 현에 돌아온 후 2주간은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모임 등의 참석을 자숙하는 등 감염 회피 행동을 철저히

○회식 (이른바 「술자리」) 에 관해서 다음 사항에 주의

●대인원 (5인 이상) , 장시간의 회식은 하지 않는다

※매일 만나고 있는 가까운 사람과 4명 이하로 단시간에 유의한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은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다, 참가시키지 않는다

●감염 확대지역에서의 체류 등 2주간 이내에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한 사람은 회식을 삼간다.

※자주 술자리에 가는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

●회식 중 먹을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5 가지 상황」에 충분히 주의

- ① 음주를 동반하는 모임 등
- ② 집단 또는 장시간에 걸친 음주
- ③ 마스크 없이 대화
- ④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 ⑤ 자리 이동

○평소 건강관리에 충분히 주의

-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근 등 외출을 삼가며, 주치의 등에 상담한 후 빠른 진찰
- 충분한 휴양과 수면을 취하고 면역 기능을 높인다.

○사업자·생산자 응원

- 감염 예방을 전제로 G o T o EAT 와 현 내 숙박 여행 할인 등을 이용해 사업자·생산자를 응원한다.

《가정 내에서의 감염 주의사항》

- ① 집에 돌아오면 먼저 손 씻기·손과 소지품 (스마트폰 등) 을 소독한다.
- ② 수시로 공용 부분을 소독한다. (손잡이, 스위치, 리모컨 등)
- ③ 정기적으로 환기하여 방의 공기를 교체한다. 적절한 가습도 잊지 않는다.
- ④ 식사할 때는 개인 접시를 이용한다. 다 같이 먹는 음식의 경우 공용 젓가락을 사용한다.
- ⑤ 체온 재는 것을 습관화하여 몸이 안 좋을 때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가족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한다.